문화예술인 공간 '무산선원' 개원

9월 19일 개막식·시 낭송회 개최

무산 스님 화합 정신 선양 공간
"종교 구분 없는 공간" 발원하며
불상 옆엔 성모마리아 상 설치도
"사찰 고요하다 고정 관념 깰 것"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9월 19일 문을 연 무산선원에서는 매월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가 개최된다. 낭송회 개최 주축인 신달자 시인(왼쪽),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가운데),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오른쪽).

서울 한복판 북악산 자락에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무산선원(霧山禪院)'이 문을 열었다.

무산선원(주지 선일)은 만해 스님의 항일 독립정신과 이 시대 선지식이자 시조시인이었던 신흥사 조실 설악 무산 스님(1932~2018)의 화합과 상생 정신을 선양하는 공간이다. 생전 문화예술분야에 지지와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무산 스님의 뜻을 기리기 위해 문화예술인들이 법석을 펼치는 곳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9월 15일 선원 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무산선원은 '사찰은 고요하다'는 고정관념을 깨뜨릴 곳"이라며 "문화예술인들이 수시로 행사를 열고 함께 소통하는 공간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산선원에서는 매달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서울 북한산 자락인 성북동에 자리한 무산선원은 작은 암자를 매입, 리모델링해 조성됐다. 설악산 신흥사 말사로, 660m² (약 200평) 남짓한 대지에 법당(약 20평)과 강당(약 50평) 등으로 이뤄졌다.

무산선원 곳곳은 무산 스님이 생전 남긴 시와 그림으로 채워져 눈길을 끈다. 법당 옆면과 뒷면은 무산 스님이 생전 남긴 그림이 새겨졌고 강당에는 스님이 생전 수했던 가사와 함께 유골함, 주석했던 백담사에서 공수한 돌로 조성된 돌탑이 전시됐다.

입구 쪽 마당에 마련된 불상 옆에는 약 2m 높이의 성모마리아 상도 들어설 예정이다. 종교 구분 없이 누구나 거리낌 없이 찾아오는 공간이 되길 마음에서다. 이는 종교 간 화합을 강조했던 무산 스님의 뜻이 계승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날 기자간담회에 함께한 권영민 서울대 명예교수는 무산 스님에 대해 "경계를 무너뜨리고 세계를 넘나들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문학과 음악, 미술을 모두 아우르며 문화예술인과 담론을 즐긴 선사"라며 "무산선원 개원을 계기로 무산 스님의 차별과 분별없는 세상을 향한 깊은 뜻을 계속 받들겠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 지지만 무산선원에서 펼쳐질 문화행사를 통해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산선원은 권영민 명예교수와 신달자 시인 등이 주축이 된 '무산을 그리워하는 모임'(가칭)을 통해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6시 30분,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를 개최한다.

9월 19일 개최된 '제1회 만해 무산 기념 시 낭송회'에 모인 문화예술인들은 무산 스님의 '아득한 성자' '아지랑이' '일월' 등을 낭송하며 스님을 그리워했다.

신달자 시인은 "시 낭송회를 통해 만해 선사와 무산 대종사의 시 정신을 다시 일깨우면서 모두가 시를 통해 정서의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한다면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무산선원 주지 선일 스님은 "무산선원은 무산 조오현 대종사의 유지를 받들고 이를 널리 선양하기 위한 열린 선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산선원을 근거지로 해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해 온 무산 스님의 높은 뜻과 고귀한 정신을 길이 이어가려 한다"면서 "무산선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각종 모임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즈베키스탄 자은사, 사찰 위 지나는 전철로 폐사 위기

관할청, 협의 없이 공사 강행
보상 없이 토지 헌납 요구도
조주 스님 "논의 자리가 먼저"


우즈베키스탄 자은사가 법당 위를 지나는 전철 공사로 폐사 위기에 몰렸다.

중앙아시아 '스탄 지역' 유일 한국 사찰인 우즈베키스탄 자은사(주지 조주)가 법당 위로 지나는 전철 공사로 도량 안전과 기능 상실을 넘어 폐사 위기에 몰렸다. 주지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설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토지 헌납까지 요구해 생존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문제는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철 건설 공사의 철로 일부분이 자은사 위를 관통하면서 시작됐다. 자은사 주지 조주 스님에 따르면 관할청은 정당한 보상은커녕 협의조차 없이 공사를 강행했고 결국 경내 위를 지나는 전철 건설 공사는 마무리 단계에 이르게 됐다.

조주 스님은 "자은사 경계를 침범하는 모습에 수차례 관할청에 상황에 대해 문의했지만 이들은 공사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 공식적인 만남과 대화를 회피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여러 관계 기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떠한 대답도 받지 못했다"고 개탄했다.

자은사는 우즈베키스탄의 타쉬켄트시 종교국과 종교위원회 및 법무부에 정식 등록된 불교사찰이다. 1991년 연등국제불교회관에서 시작해 1997년 화재로 소실됐다가 이듬해 조주 스님이 인수하면서 재건, 현재 중앙아시아 한국불교의 거점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인들의 신앙처로서, 타국살이 설움과 애환을 달래는 공간이기도 하다. 현재 30여 명의 신도가 매주 법회에 참석하며 활발한 신행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안전망조차 설치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되면서 경내에 건축자제가 떨어지는 등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절로 진입하는 것조차 힘든 지경이 되자 신도들의 발길도 점차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현재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자은사 측에 정당한 보상 없이 사찰을 폐사하고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땅을 헌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조주 스님은 "우즈베키스탄 한국대사관 측에도 문제 해결을 요청했지만 대사가 한 번 다녀갔을 뿐 진척이 없다"고 지적하며 "한국 정부에도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주 스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당국 책임자와의 면담이며 사찰 이전과 대토 등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자리 마련"이라면서 공식적인 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조주 스님은 한국 불자들에게도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측에 이 황당한 상황에 대한 항의 전화와 서한을 보내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임은호 기자

재가불교 헌신, 손안식 중신회 고문 별세



50여 년간 재가불교운동을 이끌어온 손안식 조계종 중앙신도회 고문〈사진〉이 9월 13일 향년 83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손 고문은 1970년대 조계종 중앙신도회 전신인 전국신도회의 조직화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이후 중앙신도회와 통합으로 현재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끈 장본인이다.

2004년 조계종 중앙신도회로의 통합 이후 다양한 분야에서 재가불교운동을 이끌었으며, 특히 종교평화위원회를 구성해 종교편향 근절에 앞장섰다. 중앙신도회 상임부회장으로서 활동해오던 손 고문은 2016년 물러나 고문으로 신도회 방향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손 고문의 묘역은 서울추모공원에 마련됐다.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불교대중화와 신도조직화, 사회화에 혁혁한 공로가 있다"며 고인을 기렸다. 노덕현 기자

불교 "광화문광장 불교史 왜곡 시정"

서울시 "적절한 내용 반영할 것"

조선 중기 때 불교중흥에 앞장섰다가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 희생된 보우스님을 '처벌'로 표기하는 등 역사왜곡 논란을 야기한 '광화문광장 연표석'에 대한 불교계 지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시가 연표 수정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 문화정책과는 9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 역사물길 연표에 대한 추가의견이 있을 경우 적절한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장정화)는 15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통해 새로 조성한 광화문광장의 역사물길 연표석에 서울시의 왜곡된 역사인식과 종교편향성이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가톨릭 김대건 신부 사망은 '순교'로, 조선불교를 중흥시킨 고승이었던 보우스님을 '처벌'이라고 명시한 것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조계종 총무원장 당선인 진우 스님은 9월 16일 광화문광장을 찾아 해당지점을 살펴보고 서울시와 시정협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복지재단, 난치병 환아에 1000만 원

9월 13일, 양육자 묘담 스님에 전달

네이버 해피빈 통해 모금 진행
5일만에 목표액 990만원 달성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9월 13일 윤보현 환아(5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은 9월 13일 재단 임원실에서 선천성 심장판막증과 협심증 등 선천적 장애와 난치병을 앓고 태어난 윤보현 환아(5세)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재소자의 아이로 태어난 보현이는 엄마의 친권 포기와 선천적 장애까지 앓고 있어 입양처를 구하지 못한 상황에 처했었다. 난치병 판정을 받고 위독한 상황에서 6회에 걸친 심장수술과 폐 수술을 버텨냈다.

서울 수안사 주지 묘담 스님이 보현이의 법적 보호자가 돼 양육하고 있으며 수급비와 스님의 사비로 치료비를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 1000만원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온라인 모금으로 마련했다. 5일 만에 819명의 네티즌이 동참하면서 목표액을 순식간에 달성할 수 있었다.

임은호 기자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2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신규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방문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4) 모바일앱(Play스토어) 〈내곁에 국민연금〉 설치 → 로그인(간편인증)
      → 우측상단 증명발급 선택 → 연금산정용가입내역서 선택
      → 화면 맨 하단 팩스발급 선택 → 팩스번호 입력 후 확인 선택
      → 요청하신 팩스번호로 발급 완료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일(토) ~ 10월 31일(월)**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 → 지원금 입금(12월말 입금 예정)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미제출된 스님
   ※ 신규 지원신청하신 분들은 차기년도부터 해당되며, 기지원자 스님은 보험료 납부종료시까지 매년 3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셔야 지원 혜택이 가능함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보험료 미납하신 스님
7. 군 복무 중인 스님
8.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시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중도에 변동사항 발생 시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게재

불기2566(2022)년 9월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삼 혜**